

미세먼지 대책에 자동차 업계 판도 변화 ... 친환경차 '탄력'

경유차 조기 폐차 신차 수요 기대

현대 '아이오닉' 기아 '텔루라이드'

부산모터쇼서 전기차 앞다퉀 내놔

정부가 지난 3일 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차를 줄이고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보급을 장려하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자동차 업계의 판도에도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대책이 당장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시장 수요가 디젤과 가솔린에서 친환경차로 이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에서는 특히 정부 대책 가운데 전기차를 위한 충전시설 확충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충전시설은 전기차 보급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자동차 업계 스스로 구축하기에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 전기차는 충전시설 미비와 짧은 주행거리 등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그동안 보급 실적이 미비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통계에 따르면 올해 1~4월 신규등록 차량 총 52만1647대 중 전기차는 454대에 불과했다. 비중으로 따지면 0.1%로, 이는 전년 동기과 비교해도 하나도 늘지 않았다.

연료별로 보면 경유차가 51.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가솔린(38.9%), LPG(6.6%), 하이브리드(2.9%) 등 순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충전 인프라 없이는 전기차를 할 수가 없다"며 "이번 정부의 정책으로 친환경차 보급이 탄력을 받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당초 업계에서는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으로 디젤차 비중이 높은 수입차 업체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실제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자료를 보면 올해 1~4월 등록된 수입차량의 67.4%가 디젤이었고 가솔린(27.4%), 하이브리드(5.1%), 전기차(0.1%) 등 순이었다.

폭스바겐의 경우 디젤이 판매 차량의 85%를 차지하는 등 일부 수입업체는 모델 대부분이 디젤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의 경유차 감축 정책이 승용차가 아닌 버스에 초점을 맞추면서 수입차 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수입차 판매의 98%는 승용차였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배출가스 저감



친환경차 선호현상을 반영하듯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리고 있는 '2016 부산국제모터쇼'에는 국내·외 자동차업체의 친환경 신차가 총 출동했다. 지난 2일 부산국제모터쇼 언론공개행사에서 토요타 관계자가 수소연료전지차 '미라이'를 소개하고 있다.

장치나 관련 규제 강화 등 승용차를 겨냥한 대책이 없다"며 "디젤 수요가 당장 크게 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정책이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중소형 경유차의 조기 폐차 유도가 신차 수요를 촉발해 업계 전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2009년 금융위기 당시와

같이 노후차 교체에 대한 세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신차 구매가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체들은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기 전에도 이미 미래의 수요는 친환경차에 있다고 보고 친환경차를 앞다퉀 내놓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최근 부산모터쇼에서 올해 초 발표한 26개 차종에서 2개가 늘어

28개 차종의 친환경차를 2020년까지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현대차는 부산모터쇼에서 친환경차 전용 모델인 전기차 '아이오닉 일렉트릭'을 전시했고, 기아차도 K5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PHEV) 대형 SUV 콘셉트카인 텔루라이드 PHEV를 공개했다.

토요타는 약 3분 정도의 수소 충전으로 650km를 주행할 수 있는 수소전기차 '미

라이'와 초소형 삼륜 전기차 'i-로드'를, 닛산은 단 한 번의 충전으로 132km를 달릴 수 있는 전기차 '리프'를 내놓았다.

한국GM은 차세대 볼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하반기 출시 예정이며 로노삼성은 최근 관련 규제가 풀리면서 하반기 출시를 앞둔 초소형 전기차 트윅지를 전시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SUV용 프리미엄타이어 구매 고객에 캠핑용품 증정

금호타이어 한달간 이벤트

금호타이어는 내달 2일까지 한 달간 타이어프로 등 전국 대리점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용 프리미엄 타이어를 2개 이상 구매하는 고객에게 캠핑용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금호타이어는 캠핑 시즌을 맞아 안전한 레저활동을 위한 타이어 정기 점검, 교체를 위해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행사 대상 제품은 고출력 차량용 하이엔드급 스포츠 성능의 타이어 '크루젠 HP91', 도심형 하이엔드급 컴포트 성능의 타이어 '크루젠 프리미엄', 엔트리급의 탁월한 마일리지 성능을 자랑하는 타이어 '시티벤처 APT'이다.

하이엔드급 제품(크루젠 HP91, 크루젠 프리미엄) 4개를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캐리어 웨건을 증정하며, 엔트리급 제품(시티벤처 APT) 4개 또는 하이엔드급 제품 2개를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캠핑매



트를 증정한다. 손석승 금호타이어 RE영업전략팀장은 "레저활동 중에 다양한 도로 환경을

접하게 되니 반드시 타이어 체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현대 제네시스 EQ900 '인간공학디자인상' 대상

현대자동차는 고급 승용차 제네시스 EQ900(사진)이 '인간공학디자인상'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인간공학회가 주관하는 이 상은 소비자 관점에서 제품의 사용 용이성, 효율성, 기능성, 감성품질, 안전성 등을 평가해 매년 수상작을 발표하며 올해로 16회째다.

제네시스 EQ900은 직관적인 사용성과 안전성을 확보한 전·후측 실내 레이아웃 배치, 인체 특성을 고려한 최적화된 좌 좌 자세 구현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EQ900은 가전, 가구 등이 포함된 총 7개의 수상작 가운데 유일한 자동차 제품이며 가장 높은 점수로 대상을 받았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국내서 팔린 현대기아차 54년만에 3000만대 돌파

쏘나타 330만대 최다

국내 시장에서 팔린 현대기아차의 자동차 대수가 3000만대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54년 만에 쌓은 대기록이다. 6월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처음으로 자동차 판매를 시작한 1962년 이후 올해 5월까지 국내에서 3003만8000여대(현대차 1846만4000여대, 기아차 1157만4000여대)를 판매했다.

현대기아차는 1996년에 1000만대, 2007년 2000만대 판매를 각각 돌파한 데 이어 이번에 3000만대 판매를 달성했다. 이들 자동차 3000만대를 한 줄로 세우면 지구를 네 바퀴 가까이 돌 수 있다고 한다.

차종별로는 중형 세단 쏘나타가 가장 많이 팔렸다. '국민차' 쏘나타는 1985년부터 올해까지 32년 동안 330만대가 판매했다. 이어 1990년부터

올해까지 27년 동안 276만대가 팔린 준중형 세단 아반떼, 1986년부터 31년 동안 146만대가 판매된 그랜저, 1987년부터 30년간 110만대가 팔린 프라이드가 뒤를 이었다.

쏘나타를 포함해 이들 4개 차종은 한국 시장에서 100만대 이상 판매된 밀리언셀러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1985년 출시돼 1994년까지 98만대가 판매된 엑셀(5위)은 단종된 차종 중에서 유일하게 10위 안에 들었다. 6~10위는 쏘타페, 모닝, 엑센트, 카니발, 스포티지가 각각 차지했다.

2010년부터 7년 사이에 42만대가 판매된 K5는 연평균 6만대씩 팔리고 있어서 향후 10위권 진입이 유력하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50년 이상 현대차와 기아차를 사랑해주신 고객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더 좋은 차를 만들어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체육관련시설 2층 상가매매

(에어로빅, 헬스, 당구장, 체육관, 기타) 넓은주차장 용봉, 문흥지구 중심상가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2칸)
- 매 7억5천만원(근저당 5억)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전남대 부근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 성업중 직영하실분 환영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급매 조정가)

복성중 28회 친구 찾기

- 상균이, 호승이, 재준이와 28회 졸업생 690명을 찾습니다.
- 복성28회를 아시면 신고해주세요 (매월 28일 정례모임중)

김행권(복성 28회 살림꾼) 010-3379-2209

www.솔향기맑은터.com

www.naver.com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 & 돼지갈비 전문점 예약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행복한 모임을 위한 돼지갈비전문점으로 바뀝니다. 돼지갈비, 매콤갈비찜정식, 딱갈비정식, 솔향기정식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50% 할인
- ▶ 주말 및 연말연시 모임은 사전예약으로 차질없게

사전예약시 ▶ 12인승, 25인승 차량 무료운행 / 컨퍼런스룸, 족구장 무료이용 가능